

진화하는 팻 “승리 부르는 투수 되겠다”



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빠른 적응에 성격도 밝아
첫 등판 2이닝 2실점에도
안정적 피칭 기대감 높여
“더 영리하게 던지겠다”

‘신입 호랑이’ 팻 던의 독특한 진화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선수 팻 던은 뛰어난 적응력과 밝은 성격으로 1차 합격점을 받았다. 싱글싱글 잘 웃는 그는 한글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단어를 읽을 정도다.

23일에는 KIA에서의 첫 피칭을 소화하면서 또 다른 평가를 받았다. 이날 히로시마와의 연습경기에 출격한 팻 던은 2이닝 동안 25개를 던져 2피안타(피홈런) 2실점(1자책)을 기록했다. 홈런을 허용했지만 그는 “안정적인 피칭을 한다. 기대된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팻 던은 1회 초구부터 선두타자 도바 아시에게 좌중간 2루타를 허용했지만 1루수 앞 땅볼로 원아웃을 잡았다. 이어 페나의 2루수 땅볼 때 협살로 3루 주자를 잡아내면서 투 아웃. 2사 2루에서는 3루수 직선타가 나오면서 실점 없이 첫 이닝을 마무리했다.

2회에는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 첫 타자 바티스타의 타구를 쫓던 우익수 서동욱이 포구 실책을 기록하면서 무사 1루, 메이하에게 단진 투심이 강한 바람을 타고 좌익수 담장을 슬쩍 넘어가면서 투런 포가 됐다.

홈런을 맞기는 했지만 이후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돌려세우면서 팻 던의 첫 등판이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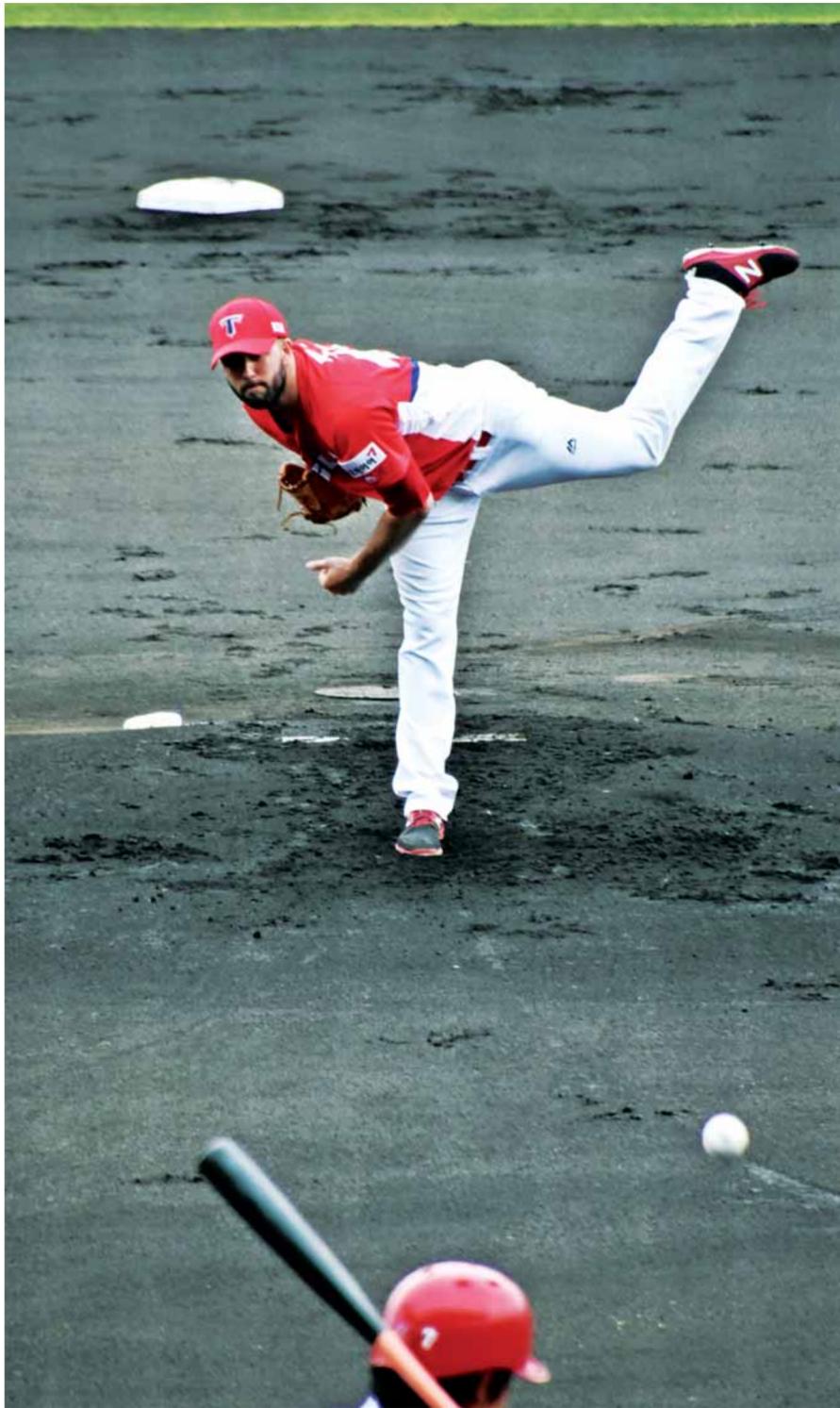
팻 던은 “바람이 세계 불기는 했지만 홈런을 맞은 건 내 탓”이라면서 첫 등판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오랜만에 타자를 세워놓고 공을 던졌는데 기분이 좋다. 타자들을 상대해 실전처럼 던진 게 의미 있었다. 오늘 경기를 통해 마운드에서 더 편해졌다”고 첫 등판을 평가한 팻 던은 그러나 “스마트하지 못했다”며 피홈런 장면을 돌아봤다.

팻 던은 “타자가 스윙을 잡했던 것 같다. 어떤 공을 노리는지 짐작은 했는데 대처하지 못한 게 아쉽다. 어떤 공을 노리지는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던져서 홈런을 맞았다”며 “다음 등판에서는 구질 선택과 타자 상대를 더 영리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피홈런은 있었지만 공 자체는 만족스럽다. 이날 팻 던은 커브, 슬라이더, 투심, 체인지업을 구사하면서 몸을 풀었다. 쌀쌀한 날씨 속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아수진들이 공을 쫓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첫 실점도 실책 후 나왔다. 2회말 팻 던이 우익수 서동욱의 포구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다. 그리고 이어진 메이하와의 승부에서 좌월 투런포를 허용했다.

한국 프로야구에 새 도전을 내민 팻 던. 새 팀, 새 동료들과의 적응도 끝났고 시즌을 위한 워밍업도 본격적으로 시작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선수 팻 던이 23일 일본 시영구장에서 열린 '재팬 시리즈 준우승팀'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의 연습경기에서 투구하고 있다.

어떨지 보려고 고루 던졌다. 로케이션도 좋았다”며 “가장 자신있는 구질은 슬라이더다. 커브도 연습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언급했다.

한국 프로야구에 새 도전을 내민 팻 던. 새 팀, 새 동료들과의 적응도 끝났고 시즌을 위한 워밍업도 본격적으로 시작

했다. 더 독특한 피칭으로 승리를 부르는 투수가 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팻 던은 “KIA에 와서 신고식을 하면서 좀 더 내달리면서 그라운드 홈런이 기록됐다. 앞선 라쿠텐전에서도 2사에서 3루수 최원준이 플라이 타구를 놓친 뒤 만루포를 맞았던 손영민은 다시 한번 실책을 어려운 승부를 했다.

6회말 수비에서는 1루수 이인행의 유격수 송구가 뒤로 빠지는 등 KIA는 불안한 수비로 히로시마 타격에 불을 붙여

공략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있다”며 “야구는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매번 내가 나갈 때마다 팀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키나와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로만 보면 강정호 필요한데”

피츠버그 매체 “대체 어려운 선수, 부재 감당 못해”

음주 운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아무리 특급 야구선수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 문제를 논의할 때는 일차적으로 음주 운전 문제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강정호(29)의 경우, 소속팀인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그의 음주 운전 판결을 노심조사 기다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피츠버그 지역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23일(한국시간) ‘야구는 부차적인 문제지만,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부재를 감당할 수 없다’며 피츠버그가 음주 운전 문제에도 강정호를 필요해 하는 상황을 전했다.

피츠버그는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에서 스프링캠프를 시작했지만, 강정호는 아직 한국에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검찰은 전날 그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3월 3일 열릴 예정이다.

강정호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매체는 “가볍게 다루서는 안 되는

문제다. 강정호의 인생에서 이 사안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가 강정호와 그의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장타를 날릴 수 있고, 피츠버그에 그의 이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호는 피츠버그에서 가장 중요한 타자 중 한 명이다. 또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선수일 것이다”라며 강정호가 피츠버그에서 가장 믿음직한 클린업 타자라고 분석했다.

그의 역할을 대신할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조시 해리스는 3루 경험이 있지만, 그가 3루를 맡으면 피츠버그는 2루수 대체도 세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2개의 포지션이 약해지는 것이다. 해리스는 파워도 강정호에 못 비친다.

비시즌에 영입한 필 고셀린은 선발급이 라기보다는 유틸리티 내야수다.

그러나 이 매체는 강정호의 부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점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목마른 첫 승’

코리아리그 4게임 전패

4게임 전패, 첫 승은 언제쯤 할까.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이 ‘2017 SK핸드볼코리아리그’ 개막(3일) 이후 여태껏 첫 승전보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개막 전, 선수단이 “경기력 뿐 아니라 팀 분위기도 전년도에 비해 달라졌다”면서 시즌에 대한 강한 기대를 드러냈던데다, 광주시체육회도 지난해 말부터 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의 운영을 맡아 훈련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지만 첫 승리에 대한 기약이 없어 팬들의 아쉬움이 적지 않다.

도시공사는 지난 4일 인천시청과 치른 첫 경기에서 20대 33으로 패한 뒤 SK슈가 클라이더즈, 삼척시청, 서울시청과의 경기에서도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이 달, 남아있는 경기는 컬러풀 대구(24일)와 부산시청(26일) 등 2게임. 부산시청과의 경기에서 올 해 개막전에서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인 서울시청을 꺾는 등 강력한 우승후보다. 컬러풀 대구도 부

산시설관리공단, 서울시청과 함께 ‘3강’으로 꼽히는 삼척시청을 누르고 4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지난해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이들 팀을 상대로 올린 승전보는 없었다.

이같은 점 등으로 도시공사의 첫 승 상대는 오는 3월 26일 만나게 되는 경남개발공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 한 해 21개팀을 치르면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만 2번의 승리를 맞았다. 무승부 기록도 경남개발공사와의 경기에서 기록했다. 다른 팀을 상대로 한 승리 신고는 없었다.

한편, SK핸드볼코리아리그는 지난 3일 개막, 남아 14게임(여자부 8팀·남자부 5팀)이 참여한 가운데 2017시즌 일정에 돌입한 상태다. 광주에서는 5월 5일~7일까지 빛고을체육관에서 모두 9경기가 치러진다. 광주도시공사는 7월까지 3라운드(라운드당 7게임)를 치른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2017 K리그 클래식 미디어데이'에 K리그 선수들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

광주 FC, 상위 스플릿 진출 목표

감독들 “우승 후보 0순위는 전복”

K리그 클래식 미디어데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감독들이 올 시즌 우승 후보로 전복 현대를 이구동성으로 지목했다.

황선홍 FC서울 감독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2017 K리그 클래식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우승 후보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전복을 꼽은 뒤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않는 데다 최강의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이 이미 입증됐다. 또 최강의 감독님이 오랜 기간 팀을 이끌어온 것도 강점”이라며 이유를 들었다.

전복은 지난해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10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나 구단 직원이 ‘심판 매수’에 연루된 점 때문에 올해 ACL 출전권을 박탈당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K리그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른 감독들도 약속이나 한 듯 전복을

우승 후보로 지목했다.

이처럼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은 “전복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단이 더욱 우승하려는 의지가 강할 수 있다”며 전복의 K리그 챔피언스리그를 예상했다.

서정원(수원), 김도훈(울산), 최순호(포항), 노상래(전남), 김태환(상주) 감독도 우승 후보로 전복을 맨 위에 올렸다.

이에 대해 최강의 감독은 “전복은 6강 상위 스플릿에 드는 목표”라며 엄살을 떼며 “개인적으로 강원FC가 우승했다면 좋겠다”며 초점을 돌렸다.

최 감독은 “강원은 K리그가 축소되고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영입했고, 최윤겸 감독의 지도력도 뛰어나다”며 “강원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걸 넘어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강원의 최윤겸 감독은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싶다. 아직 지도자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연합뉴스

일본전 6전 전패... 연습경기지만 째째하네

KIA, 재팬 시리즈 준우승 히로시마 등에 고전

6전 전패로 끝난 ‘일본’ 맞대결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일본 시영구장에서 열린 ‘재팬 시리즈 준우승팀’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의 연습경기에서 1-15 패를 기록했다. 14일 야쿠르트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주니치, 니혼햄, 라쿠텐, 요코하마 그리고 히로시마전까지 패배가 이어지면서 일본팀과의 6경기에서 모두 패가 쓰여졌다.

타를 허용하는 등 마운드의 흔들렸지만 이어진 수비 실수가 더 아쉬웠다.

쌀쌀한 날씨 속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야수진들이 공을 쫓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첫 실점도 실책 후 나왔다. 2회말 팻 던이 우익수 서동욱의 포구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다. 그리고 이어진 메이하와의 승부에서 좌월 투런포를 허용했다. ‘홈런 바람’을 타고 슬쩍 담장을 넘어간 타구였다.

손영민이 등판한 4회말에도 우익수 뒤로 공이 흘렀다. 0-4로 뒤진 2사2루에서 아베의 타구가 우익수 서동욱의 뒤로 빠졌고 그사이 타자 주자가 1루를 돌아 홈까지 내달리면서 그라운드 홈런이 기록됐다. 앞선 라쿠텐전에서도 2사에서 3루수 최원준이 플라이 타구를 놓친 뒤 만루포를 맞았던 손영민은 다시 한번 실책을 어려운 승부를 했다.

6회말 수비에서는 1루수 이인행의 유격수 송구가 뒤로 빠지는 등 KIA는 불안한 수비로 히로시마 타격에 불을 붙여

주었다. 히로시마와의 경기를 끝으로 이번 캠프에서 예정된 일본 팀과의 맞대결은 마무리됐다. 결과도 결과지만 아쉬운 경기력으로 6연패를 기록하면서 KIA에게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게 됐다.

KIA는 스케줄 변동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KIA는 쌀쌀한 날씨와 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캠프 스케줄을 변동했다. 25일 예정됐던 휴식일을 하루 앞당겨 24일 선수단이 휴식날을 보낼 예정이다. KIA는 25·26일 훈련 일정을 소화한 뒤 27일 캠프지인 킨 구장에서 화와와 연습경기를 치른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